AI의 능력과 권한을 분리하는 회사 내부통제 체계도

AI에게 업무는 위임하지만 경영권은 위임하지 않는다.

1인 회사의 AI 1호 직원 운영모델

4대 경영권

1 권한의 위임

AI에게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맡길지 사람이 정한다.

2 승인·결정권

중요 결정과 다음 단계 이동은 대표 승인 후 수행한다.

3 검토·검수

사실·파일·형식·지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는 반려한다.

4 윤리·위험 검토

정확해 보여도 개인정보·기밀·전문책임·분쟁 위험이 크면 중단한다.

업무 흐름

대표
목적·판단기준
최종책임

→

권한 위임
범위·단계·금지선

→

AI 1호 직원
검색·분석·작성·파일작업
검수지원

→

대표 승인
결과검수·위험판단

→

실제 실행
승인 후 수행

핵심 원칙 | AI의 능력 ≠ AI의 권한

2대 내부통제

5 기록·감사

현재 기준본·수정본·기각본을 구분하고 변경 이유와 결과를 남긴다. 오류본은 후속 작업의 기준으로 승계하지 않는다.

6 정지·상신

정보 부족·기준 충돌·권한 초과가 발생하면 AI가 임의 판단하지 않고 멈춘 뒤 대표에게 판단을 요청한다.

생산성은 AI가 높이고, 권한의 범위·최종결정·품질판단·윤리판단·책임은 사람이 유지한다.